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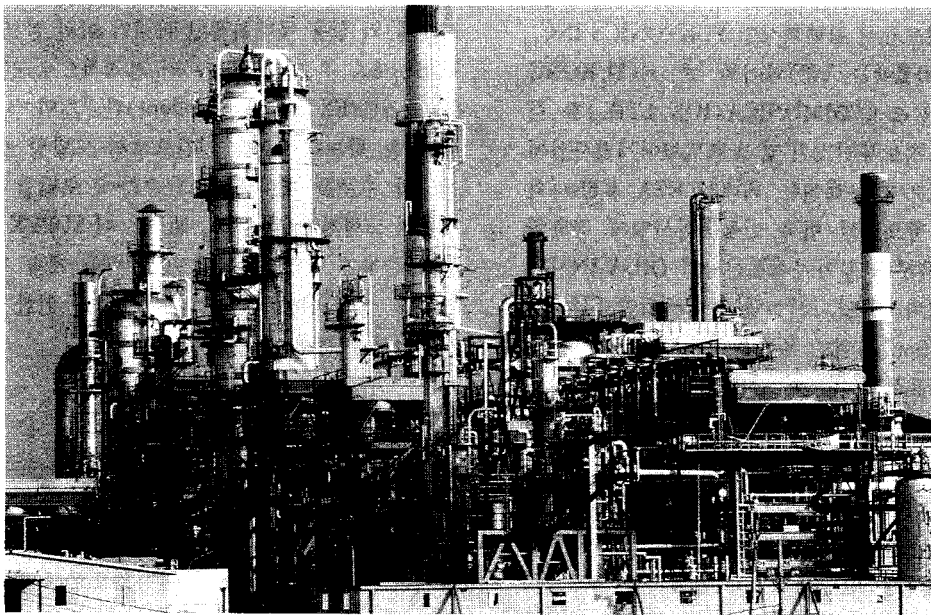


대표이사 김항덕

종합에너지 · 종합화학의 미래 주식회사 유 공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26-4

전 화 : 788-5114



'92년 12월 시운전중인 (주)유공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전경

I. 회사개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60년대초 한국 최초의 정유회사로 출발하여 업계 선두주자로서 국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화학 및 기타 관련소재 분야의 산업기반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株)油公(대표 金恒德)은 지난 30여년동안 정부투자시기, 美國 걸프社와의 합작투자시기를 거쳐 1980년

鮮京그룹의 경영권인수에 따라 완전민영화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업혁신과 발전을 거듭하여 '91년도 매출 약 4조여원의 국내 일류기업으로 성장하였다.

(株)油公은 특히 순수민간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80년대 이후 “세계일류수준의 종합에너지 · 종합화학기업”을 성장목표로 설정하고 매년 중 · 장기경영계획의 수립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슬기롭

게 대처하고자 노력한 결과 이제는 기존의 석유정제, 윤활유제조, 석유화학 기초유분생산분야 이외에도 해외유전개발, 대체에너지개발, 석탄·가스 및 합성수지, 합성고무 관련사업에 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鮮京그룹의 숙원이었던 「원유에서 섬유까지」 완전히 전문화된 수직계열화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한 종합에너지·종합화학기업의 기본체계를 굳건히 갖추게 되었다.

한편 油公은 사업영역을 종합에너지·종합화학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유망 사업분야에의 진출 및 기업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중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지난 '89년 미국에 정보통신 관련회사인 YUKRONICS INC.를 '90년 10월에는 (주)와이씨 앤 씨(YUKONG COMPUTER & COMMUNICATION LTD.)를 각각 설립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본격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테네시 RSA #6B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미국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한 바 있고 석유부문 부가가치통신망인 OIL-VAN사업 및 데이터베이스사업, 시스템 통합사업인 SI(System Integration)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속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그 결과로 유공아코, 유공에라스토머 등 외국 기술선과의 국내합작회사 설립 뿐 아니라 이탈리아 몬테디페社, 중국 국제신탁투자공사와 3자 합작으로 홍콩 페트로케미컬社를 설립하여 홍콩에 PS공장을 건설하였으며 美國 등의 4개사와 합작으로 중국 심천에 태양전지 제조공장을 건설중이고 美 테네시 RSA #6B社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최근에는 터키에서 크롬광 개발 및 페로크롬 합작사업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화부분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미 7개국가에 해외사무소 및 현지법인 9개를 설립, 국제화 전초기지로 보유하고 있는 油公은 '96년까지 유망신규사업의 J. V., 해외기업 M & A(Merger & Acquisition)를 통해 해외사업망 확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 2단계 국제화 전략을 추진중이다.

이와 같은 활발한 수직계열화, 업종다변화를 위하

여 '87년이후 油公은 막대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설비건설이 필요한 정유 및 석유 화학사업의 특성에 따라 '87년~'89년 기간동안 1조 1천억원의 투자를 집행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93년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油公의 매출액도 '92년 4조 4천억원에서 '95년에는 7조 5천억원, 2000년에는 20조원으로 그 규모가 대폭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21세기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의 하드웨어인 사업분야에서 보여지는 油公의 의욕적인 활동은 소프트웨어인 경영기법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어 기존의 SKMS(선경경영관리체계)의 활용 극대화뿐만 아니라 이의 실천도구로서 SUPEX 추구를 '9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SUPEX(Super Excellent)란 「개인이나 조직이 일을 하는데 있어,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찾아내어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油公은 이 SUPEX 추구를 통하여 장기 기업성장목표 및 전략을 계속 검토 보완하여 세계 일류수준의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다.

II. 에너지 및 화학사업현황

에너지사업

지난 1962년 석유정제·판매에서 시작한 油公의 에너지사업은 그간 석유 개발사업으로의 성공적 진입과 지속적인 정제능력 확장 및 고도화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수송·저유·판매능력의 보장을 통해 일일생산능력 58만 배럴, 시장점유율 39%의 국내최고 수준의 석유사업자로 성장하였으며 정제설비 증설, 증질유분해시설 건설을 통해 국내 정유업체의 Leader로서 양질의 석유류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탈황시설의 건설 기술혁신 등을 통한 품질개선과 공해방지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油公은 석유사업분야에서 구축한 경쟁력을 바탕으

로 가스사업과 기타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85년도 이후 LPG 수입·공급회사인 유공가스와 구미, 청주, 포항, 서울지역의 도시가스회사들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LPG의 수입·판매, 도시가스의 생산·판매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는 한편 산업용·발전용 유연탄의 공급과 해외 유연탄광의 개발 및 Trading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각종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80년대부터 진출한 석유개발사업에서 북예멘 마리브광구의 2개의 대규모 유전개발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으며 '89년에는 미얀마에서 단독 탐사·개발권을 획득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세계석유 Major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유탄유사업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일산 2천 5백 배럴의 유탄유 생산시설과 연산 6천톤의 그리이스 생산능력을 갖추고 유탄유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유공상표의 자체개발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한편 공해없고 고갈되지 않는 신에너지의 출현을 요구하는 에너지사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연구개발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환경문제 및 장기적인 에너지 수요패턴의 변화에 대비한 태양전지, 연료전지, 축전지 등 신규 에너지자원의 상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기반을 사업기반으로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사업

화학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 기초유분생산설비 증설과 함께 신규화학 사업분야에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중간유도품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70년대부터 공급하여 온 Olefin계, 방향족계 석유화학 기초유분 이외에 '89년말에는 MTBE/Butene-1 제조시설, '90년초에는 제 2싸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을 각각 완공하였으며 「원유에서 섬유까지」라는 그룹 수직 계열화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폴리에스터의 원료로 사용되는 P-X 제조시설을 '90년초에 완공하였다. 또한 유공 옥시케미칼주식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91년에는 PO/SM 병산공장을 완공한 바

있다.

한편 油公은 '90년 8월 가동한 PE/PP 제조시설과 일본 스미토모社와 합작으로 추진, '92년 9월 가동을 시작한 EPDM 제조시설을 통해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사업 분야에도 진출하였으며 특히 합성수지사업은 새로운 주력사업으로서 범용수지분야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분야를 비롯한 첨단 고분자소재 사업분야에 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91년도에 미국의 HIMONT社와 합작으로 설립한 유공 HIMONT社는 합성수지분야에 대한 油公의 사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이 회사를 통해 PP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인 PPAM의 제조·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 다른 범용수지인 PS생산공장을 이탈리아 몬테디페社, 중국 국제신탁투자공사와 3자합작으로 '92년도 홍콩에 건설하였다.

油公의 화학사업은 현재의 Bulk Chemical 위주의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인 정밀화학, 고분자화학, 신소재 등 고도의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油公은 연구개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진기술선과의 합작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Table 1. 유공의 화학제품 생산시설 현황

생 산 시 설	생산능력	완공시기
BTX제조시설	70	'70/'85
나프타분해시설	55	'73/'89
싸이클로헥산제조시설	13	'74/'90
특수용제제조시설	14	'80/'88
MTBE/Butene-1제조시설	8(MTBE) 3(B-1)	'89
PE/PP제조시설	20(PE) 15(PP)	'90
P-X/O-X 제조시설	20(P-X) 5(O-X)	'90
PO/SM제조시설	10(PO) 22(SM)	'91
EPDM제조시설	2	'92

※ 생산능력 : 만톤/년

III. 연구개발 현황

한편 油公은 그동안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자체기술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기술경쟁시대를 향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처하고자 R & 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 '80년대초에 설정된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및 이의 실천을 위한 방대한 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85년도에 울산연구소를 설립하였고 '89년도에는 미주동부 R & D Center 및 인천고분자연구소를 차례로 개소하여 석유제품, 윤활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개발, 각종 유류제품의 첨가제 개발, 연소·부식연구, 공정·촉매개발연구 및 소비자 불만사항처리 등은 물론, 고분자·정밀화학·신에너지·Bio 등 첨단과학 분야에서의 각종 신제품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Connecticut州에 위치한 미주동부 R & D 센터에서는 선진기술연구 및 기술정보수집활동을 펼침으로써 회사의 기술력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존 연구소의 주요기능을 통합하여 관련기술간의 System화를 통한 연구생산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1993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대덕연구단지내 종합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油公이 그룹과 공동으로 2000년까지 약 10만평의 대지위에 2천 5백억원을 투입하여 설립하게 될 이 연구소는 연구원 3,000여명을 수용하고 미래의 “技術油公”을 기약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화학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보·통신사업 및 기타 첨단 신규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유공의 연혁

- 1962. 10. 주식회사 유공 설립(설립시명칭: 대한석유공사)
- 1964. 4. 일산 35,000배럴로 정유공장 가동개시
- 1967. 5. 일산 55,000배럴 제 2상압 증류시설 가동
- 1968. 12. 윤활유 배합공장 가동(일산 550배럴)

- 1970. 5. 방향족 추출공장 가동(연산 300,000톤)
- 1972. 10. 일산 60,000배럴 제 3상압 증류시설 가동
- 1973. 3. 에틸렌 기준 연산 100,000톤 나프타 분해센터 가동
- 1974. 6. 제 2상압 증류시설 일산 100,000배럴로 확장
- 1978. 3. 나프타분해센터를 연산 155,000톤 규모로 확장
- 1980. 3. 윤활유 배합공장 일산 2,000배럴로 확장
- 1980. 12.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주식회사 선정이 유공주식 50% 및 경영권 인수
- 1982. 7. 7월 1일 (주)대한석유공사에서 (주)유공으로 상호변경
- 1985. 11. 유공 울산연구소 준공
- 1985. 11. 기존 상압증류시설의 개조로 유공의 정유시설 일산 345,000배럴로 확장
- 12. 신규 방향족 제조시설가동(연산 400,000톤)
- 12. 주식회사 유공가스 설립
- 1987. 5. 그리스 제조시설 가동(연산 6,000톤)
- 9. 미국 “아코케미칼”사와 50:50의 비율로 합작회사 유공 아-코화학주식회사 설립
- 1988. 1. 북예멘 “마리브” 개발원유 도입개시
- 1989. 5. 일본의 住友化學工業(株)와 합작으로 유공에라스톰 주식회사 설립
- 10. 미얀마 Block-C 광구 석유탐사 개발권 획득
- 1989. 11. MTBE/Butene-1 제조시설가동
- 11. 미주동부 R & D Center 개소
- 11. 인천고분자연구소 개소
- 12. 신규에틸렌 제조시설 가동(에틸렌기준 연산 400,000톤)
- 1990. 1. 제 2싸이클로hexan 제조시설 가동(연산 100,000톤)
- 5. 파라자일렌 제조시설(연산 200,000톤) 및 올소자일렌 제조시설(연산 50,000톤) 가동
- 7. 호주 Clarence 탄광 지분 10% 매입

8. 폴리프로필렌 제조시설 가동(연산 100,000톤)
10. 폴리에틸렌 제조시설 가동(연산 120,000톤)
1991. 3. HIMONT사와 합작으로 유공하이몬트(주)설립
4. FUCHS사와 합작으로 (주)유공옥스 설립
4. 유공아코 PO/SM 공장가동
5. 제 4상압 증류시설 가동(일산 150,000배럴)
6. 신규휘발유 제조시설 가동(일산 30,000배럴)
1992. 2. 미국 Tennessee RSA #6B사 지분 20% 획득
10. 미국 아코케미컬사의 철수로 유공아코화학(주)의 단독 운영 및 유공옥시케미칼(주)로 사명 변경